

## 자비의 신

**핵심 구절: "여호와와는 자비롭고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시편 103:8**

**선택한 성구:**

**시편 103:1-14**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낳는 비뚤어진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고 복수심에 불타며 인간 가족에게 적대적이고 판단이 빠르고 처벌이 빠르다고 상상합니다. 우리의 핵심 구절은 이러한 생각의 오류를 없애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03편은 우리의 생각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치유의 향유입니다. 주님의 백성은 이 시편을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할 것을 권장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의 환희에 찬 어조, "나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소서, 나의 온 마음을 다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나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가 내게 행하신 선한 일들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질병을 고치십니다. 그는 나를 죽음에서 구속하시고 사랑과 부드러운 자비로 면류관을 씌우십니다. 그는 내 삶을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내 젊음이 독수리처럼 새로워지네!" 1-5절

이것은 우리의 창조주에 대한 진실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분은 용서하십니다. 그분은 원한을 품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난하거나 영원히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벌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 가혹하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은 땅 위의 하늘 높이만큼이나 크십니다. 동쪽에서 쪽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9-12절

사도 바울도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이유는, 제가 오게 되면 가장 큰 기쁨을 주어야 할 바로 그 사람들로 인해 슬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모두 저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괴로운

마음과 많은 눈물을 흘리며 그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을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4). 우리의 창조주는 "자비의 아버지"로 인정받습니다. 복수의 "자비"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은 여러 가지 색조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는 또한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식별됩니다. 그분께 삶을 바친 사람들은 그분의 다양한 자비와 깊은 위로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반복되는 주제가 있는데, 아마도 밋세바와의 간음과 우리아의 살인이라는 큰 죄에서 영감을 받았을 것입니다. 시편 51편의 고뇌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오 하나님,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긍휼로 제 죄의 얼룩을 지워 주소서. 죄책감에서 저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제 죄에서

저를 깨끗하게 하소서. 저의 반역이 밤낮으로 저를 괴롭힙니다. 주님께만 죄를 지었고,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며, 나를 향한 당신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1-4절

독자 여러분, 우리가 자비의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비슷한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친절하듯이 주님도 자신을 공경하는 자에게 친절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아시고, 우리가 먼지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그분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며, 그분의 언약에 충실하고 그분의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분의 선하심이 만대에 걸쳐 지속됩니다." 시편 103:13-18